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college는 100 West 49th street에 위치해있으며 Langara 49th 스카이트레인 역에서 내려서 5분만 걸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전반적으로 넓고 깨끗한 캠퍼스였고, 학기 중이 아니어서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book store뿐 아니라 cafeteria 등이 편리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밥을 먹는 cafeteria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팀 홀튼과 스타벅스 그리고 간단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매점도 구비되어 있어 편리했습니다.
수업	첫 수업 시작하기 전 큰 강당에 모여 수업을 신청한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시험을 통해 5개의 반으로 나뉩니다. 점심 먹은 후 반이 배정되는데 앞으로 3주 동안 배정받은 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줍니다. 수업은 캐나다 밴쿠버를 중심으로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문화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activity 하는 시간을 가져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수업은 선생님이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재미있었습니다. 유쾌하신 저희 선생님과 수업하며 하루하루 즐거웠습니다. 저희 클래스는 과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일기가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첨삭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Activity	첫 주에는 Discover Vancouver이라고 해서 밴쿠버의 관광명소를 투어하는 것인데 이곳저곳 밴쿠버의 관광명소를 돌아다니며 밴쿠버의 모든 것을 둘러볼 수 있고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Kayaking을 하는데 2인용으로 카약을 타고 1~2시간 정도 카약을 탑니다.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는데 설명을 잘해주시고 생각보다 쉬어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Whistler trip을 하는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흔들 다리도 건넜는데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밴쿠버에서 가장 큰 공원인 스탠리 파크에 가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며 여유로운 시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첫 주는 한국과 동일하게 더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비가 온 뒤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벌 옷과 긴팔을 꼭 챙기세요. 가디건도 좋아요. 어느 정도 선선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긴팔 2~3개 정도는 챙겼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추웠습니다. 후드티 챙기셔도 됩니다. 더 말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안전	밴쿠버는 매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꼈던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밤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차이나타운은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이나타운은 위험하다고 들어왔기에 가보진 않았지만 무서운 동네라고 합니다.
숙소	숙소는 따로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제공해 준 홈스테이로 진행되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친절하였고 아이 3명이 있어서 저에게 많은 신경을 쓰진 못했지만 저녁식사 시간마다 항상 많이 이야기하려 노력해 주셔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 뿐만 아니라 일본인 친구와 같이 홈스테이를 하게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식사	아침은 간단한 빵과 과일을 먹었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주셔서 학교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어도 되고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주로 밖에서 친구들과 먹었습니다.
교통	교통은 학교에서 준 1달 무료 카드로 compass 카드라는 것을 발급해주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버스는 물론 지하철 1존까지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편하고 좋았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유심	45000	
내 선물	500,000	
기념품	200,000	
외식비	150,000	
등등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밴쿠버의 날씨가 마냥 덥지만은 않으니 긴팔과 두꺼운 옷을 적절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유심은 꼭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항이나 현지에서 살 수 있지만 한국에서 해외용 유심 사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학교나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와이파이가 터지긴 하지만 이곳저곳 여행할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길을 모를 때 앱을 사용하여 이동하면 훨씬 쉽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건은 개인 수건을 쓰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간혹 빌려주는 홈스테이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빌려주지 않기에 각자 챙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갈 때보다 올 때 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한 번 쓰고 버릴 수건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오래 있다 보니 발이 불편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보조배터리도 여분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 백팩도 챙겨 가면 휘슬러 할 때 편할 것입니다. 또한, 출국 전에 라면 가져가는 것은 정말 추천합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한두 개 정도 가져가서 현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는 햇빛이 강해 선크림을 챙겨 매일 발라야 합니다. 3주 동안 매일 밖에 있어야 합니다. 3주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습니다. 가기 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라는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영어실력이 느는 것은 물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남으로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기 어학연수를 가기 전 고민도 많이 하고 가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막상 가서 생활해 보니 하길 잘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방학 동안 알바를 하거나 자칫하면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나아가보니 생각도 넓어지고 제 인생에 있어 동기부여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지의 문화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제 자신에게도 뿌듯했습니다.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립습니다. 학교, 그곳의 선생님, 함께 했던 친구들 모두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일본인 친구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주어서 깜짝 놀랐지만 덕분에 캐나다에서의 마지막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국경 상관없이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기회가 아니었더라면 홈스테이라는 안전한 생활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뜻깊은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캐나다 플레이스	빅토리아 주의사당



스탠리파크에서 자전거타기



휘슬러 정상에서



나이트마켓에서 먹방



3주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과 친구들